

“農道 전남, 곡물생산기지로 육성을”

韓銀 '국제 곡물시장 변화와 전남의 농업' 보고서

미래 식량위기 대비 정부차원 지원 시급 품질 차별화 추진·영농 대형화 서둘러야

한국이 미래 '식량 전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전남지역을 곡물생산기지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남은 국내 곡물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점에서 농가의 생산성 제고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전남농업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5일 '곡물시장의 여건변화와 전남지역 농업의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는 등 식량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의 국내 곡물생산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전남 농업의 생산성 제고 및 수입곡물과의 품질 차별화, 청정농축의 농업인력 유입 촉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곡 중 꼴찌(26위) 수준인 우리나라도 국제곡물가 폭등 등에 따라 농업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나해부터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곡물생산국의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등 곡물의 수급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전남을 미래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 곡물생산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전남 농업의 생산성 제고 및 수입곡물과의 품질 차별화, 청정농축의 농업인력 유입 촉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생산성 향상의 경우 영농의 대

형화 및 기업화를 유도하고, 저장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이모작이 가능한 전남의 기후 특성상 이모작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산·학·연·관과 식품가공 부문 등이 참여한 농식품업 클러스터 유치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입곡물과의 차별화 전략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농산물 품질보증제 도입 등을 꼽았다. 현재 전남은 전국 대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38.7%(69만1천)에 달할 만큼 품질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차 '제네시스' 고객 사은행사

현대차는 25일 경기도 기흥 골드컨트리클럽에서 제네시스 고객 40명을 초청, '전문가 초청 골프클러닉'을 진행했다. 이어 현대차는 오는 10월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4개 지역 제네시스 고객 400명을 시카고, 명성황후, 흥동, 컷츠 등의 고품격 문화공연에 초대한다. 상세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제네시스 홈페이지(www.the-genesis.co.kr)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개점 13주년 기념행사 다채

광주신세계(대표 이장환)가 25일 개점 13주년을 맞아 백화점 1층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해 석강 신세계 백화점본부 대표이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이어 마련된 축하행사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오픈하던 95년에 태어난 초등학생 6학년 장유림 어린이의 축하 메시지를 시작으로 사원들이 준비한 사자춤·소고

춤, 광주시립국극단의 오고무 공연 등이 기념식장의 흥을 돋구었다. 이장환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선진국형 복합쇼핑타운이라는 확실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이제 지역 1번집을 뛰어 넘어 전국적인 점포로 성장해가고 있다"며 "내년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픈하게 되면 쇼핑과 문화가 결합된 명실상부한 호남 최고의 생활 문화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땅값 소폭 상승

지난달 각각 0.09%, 0.23% 올라... 전국 평균 훨씬 못미쳐

지난달 광주·전남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 지역 내 자산가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땅값 상승률은 0.0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0.42%)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남도 지난달 지가 상승률이 0.23%에 그쳐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가치 하락세가 뚜렷했다. 반면 서울은 지난달 땅값 상승률이 0.59%에 달하면서 광주에 비해 6배 가량 높았다. 또 인천과 경기의 지가가 각각 0.59%, 0.47% 오르는 등 수

도권의 땅값 강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경기 김포시의 땅값이 1.33% 상승했으며, 인천 남구(1.21%), 서울 용산구(0.86%), 인천 서구(0.82%), 경북 예천군(0.82%)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의 토지거래량은 24만4천827필지, 2억2천533만㎡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에 비해 필지와 면적이 각각 25.1%, 15.1% 증가한 것이다. 용도별로는 공업지역(38.0%)과 상업지역(34.3%)이, 이용상향별로는 답(30.0%)과 공장용지(29.1%) 등의 토지거래가 많이 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고유가 등 외부충격에 의한 창업, 일자리, 에너지난 등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 지원계획'을 시행한다. 지원분야는 창업기술개발과제, 에너지절감 기술개발과제로 나뉜다. 창업기술개발과제는 2005년 8월 1일 이후 창업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자유응용형 과제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http://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U대회 유치 재도전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전남본부 성명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강영태)는 2015년 U대회 유치 추진을 위해, 광주시민이 다시 한번 역량을 모아 U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성명서에서 "대의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U대회를 개최할 경우 9천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천5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여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r

신도시 지정권, 시·도에 넘긴다

택지개발 촉진법 개정 ...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신도시 지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차원으로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완전히 시·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능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면적이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부에 있다. 특히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은 정부가 지정뿐 아니

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도 승인해 주고 있다. 정부는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지구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으로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인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중도위라는 통제장치를 두더라도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가면 신도시 개발이 많아지고 특히 중도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30만㎡미만의 택지개발은 무분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건설 '진월 2차 한국아메리움' 청약 경쟁률 최고 28.5대 1

한국건설이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공급한 '진월2차 한국아메리움'이 평균 6.4대 1의 청약 경쟁률로 마감됐다. '진월2차 아메리움'은 124~125㎡(37평형) 127세대 규모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1:2:3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총 812명이 접수했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25.1㎡는 20가구 공급에 228명의 청약자가 몰려 28.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청약 열기는 광주지역 최초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또 필터 및 탑상형 설계 등 신공법 적용과 함께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태양광설비 등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진월2차 아메리움'은 27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9월 2일부터 사흘간 계약을 실시한다. 문의 1577-8733.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일중한의원' (Iljung Han's Clinic) featuring a list of medical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ad includes a logo and several photos of medical staff.

Advertisement for 'i엘리시아' (iElysia)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www.ielysia.com). The ad includes a logo and several photos of people.